

버려질 유니폼 1만벌 활용 ...‘리뉴 벤치’10개 기부

광주신세계, 폐유니폼 전국 점포서 수거 ‘업사이클링’
서구 운천어린이공원에 설치... 시민 휴식공간 환원

버려질 뻔한 유니폼 1만벌이 시민들의
침터로 돌아왔다. 광주신세계가 ‘리뉴 벤
치’ 기부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새 모
델을 제시했다.

광주신세계는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어린이공원 인근에서 ‘리뉴 벤치 기
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영
천 광주신세계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치된 벤치는 총 10개로, 전국
13개 점포에서 수거한 폐유니폼 1만벌이
재활용됐다. 수거된 유니폼은 이물질 제
거와 파쇄, 압축 성형 과정을 거쳐 견고
한 벤치로 재탄생했다. 버려질 옷에 새로
운 가치를 입혀 시민을 위한 침터로 되돌

려준 셈이다.

광주신세계는 쓰임이 다한 옷이 모두
를 위한 침터로 재탄생했다는 뜻을 담아
‘리뉴 벤치(RE+NEW)’라는 이름을 붙
였다. 매립·소각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유니폼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리뉴 벤치가 놓인 장소는 플라스틱
병뚜껑 10만개로 조성된 업사이클링 벽화
가 있는 ‘십만양병 벽화길’과 인접해 있어
자원순환의 가치를 한층 부각시켰다.

광주신세계는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순
환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왔다.

지난 8월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발생
하는 폐식용유를 재가공해 친환경 배누

로 제작, 지역 환경·시민단체에 기부했
다. 폐식용유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
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지역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 숫자
표기와 투명 원단, 야광 반사띠 등을 적
용해 안전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김영천 관리이사는 “광주신세계
의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
동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며 “현지
법인으로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
나갈겠다”고 말했
다.

송대웅 기자 sty1235@



광주신세계는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운천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김영천 광주신세계 관리이사 등이 참
석한 가운데 ‘리뉴 벤치 기증식’을 열었다.

현대차·기아, 스마트 팩토리 기술 공유

로봇순찰·디지털트윈 등 4개 주제 177개 전시

현대차·기아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전시하는 ‘이포레스트 테크 데이 2025’를
화성과 울산 사업장에서 열었다고 6일 밝
혔다.

현대차·기아는 6회차를 맞은 올해 ‘자
동화 혁신’, ‘제조 지능화’, ‘친환경·안
전’, ‘신모빌리티’ 등 4개 주제로 나눠 총
177개 기술을 선보였다.

자동화 혁신 분야에서는 로봇이 무거운
전선 다발을 차량에 투입하는 ‘와이어링
공급 자동화’, 자동차 도장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상도 샌딩·폴리싱 자동화 시스
템’이 전시됐다.

함께 전시된 ‘고가반 로봇 활용 AGV
차체 라인’은 무인 운반차(AGV)를 활용
해 차체를 운반하고 높은 곳에 설치된 로
봇이 차종별로 다른 부품들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제조 지능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디
지탈 기술을 활용한 기술들이 조명됐다.

‘스마트 기반 PHM 시스템’은 보스턴다이
내믹스의 4축 보행 로봇 스팟(SPOT)이

공장을 순찰하며 설비의 진동, 온도, 가스
누출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기술이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활용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공간에서 실제 공장 설비와
연동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SLM 기반 지능화 시스템’은 현대차그룹
이 자체 개발한 소형 언어모델(SLM)을
활용해 설비 고장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신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초경량 소재 제
조, 정밀 성형,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
형 부품 제조 기술 등이 선보였다.

현대차·기아는 제조 기술 혁신의 지속
성을 위해 독창적인 기술 순환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의왕연구소에서는 차세대 혁신 제조기
술 개발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
으며 생산공장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장을 만들어가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체
계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연구소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들이 단계적 검증 및 개
선 작업을 거쳐 생산공장에 실제 적용되
며 이 과정에서 기술 완성도 향상이 지속
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기술 순환 체계
의 성과를 테크 데이 전시를 통해 대내외
에 공개하고 협력사 및 산업계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수능 합격 기원 마음 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대학생
학생력평가를 앞두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비맥주, 구호용 생수 기부

사탕수수 100% 용기 사용

오비맥주는 재해 구호용 친환경 생수
‘OB워터’ 4만5000여병을 생선에 재해 구
호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임채정)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OB워터’는 친환경 생
수 전문기업 ‘산수유로’와 협업해 생산
했다.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를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 국내 유일

100% 사탕수수 유래 용기에 담았으며,
라벨과 뚜껑 또한 사탕수수 유래 생분해
성 소재를 사용했다. 생수병 라벨에는
OB워터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가 삽입돼 있으며, 오비맥주와 희망브리
지 로고가 인쇄돼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도 전했다.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환경과 재해구
호를 위해 친환경 용기에 담은 기부용
‘OB워터’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어
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긴밀히 협
력해 나갈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해양에너지, 사내 안전문화 확산 ‘총력’

안전골든벨 성료...안전관리 역량 향상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본사 안전관리 대강
당에서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 해
양에너지 안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성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제고
를 위해 마련됐다.

퀴즈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

법, 중대재해처벌법, 회사 사규 등 업무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안전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행식 사전 공개 퀴즈를 통해 모든 구성원
이 미리 학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1차 O/X 예선전과 2
차 객관식·주관식 본선으로 진행됐다. 참
가자 전원은 안전모와 현장 안전조끼를
착용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분위기 속에

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안전
골든벨은 단순한 퀴즈 대회를 넘어 구성원
스스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회사 내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
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대
상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빛!

에너지고속도로!

새로운 빛이 대한민국을 밝힙니다

재생에너지를 막힘없이 이어
첨단산업의 미래를 열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에너지고속도로,
한국전력이 완성하겠습니다

 한국전력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잇는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